

# 3국 협력의 진전: 현실과 전망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 3국 협력의 진전: 현실과 전망





〈3국 협력의 진전: 현실과 전망〉을 한국, 중국, 일본 국민과 정부 및 여러 관계자들에게 선보이게 되어 기쁩니다. 3국협력사무국(TCS)이 기획, 작성한 이 보고서는 정책자문기관으로서 TCS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 간 협력을 촉진, 한·중·일 대중에게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는 2010년 제주도에서 열린 제3차 3국 정상회의 결과 문서 ‘3국 협력 VISION 2020’에 대한 성과 검토 및 3국 시민의 생생한 시각을 담았습니다. 〈제1부〉는 위 결과 문서가 목표로 한 5대 주요 영역 41개 특정 목표 진행 상황을 포괄 조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3국 정상은 TCS를 설립한다는 요지의 문서를 채택했으며, 이는 TCS의 성과와 진전에 대한 총체적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 2부〉 3국 시민과의 대화는 3국의 학자, 언론인, 청년 세대를 아우르는 총 6명 인사의 생생한 3국 협력 참여 경험과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통찰력과 지혜는 3국 협력의 방향성 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입니다. TCS는 이번 연구에 ‘이중 트랙(dual track)’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중에게 친근한 방식으로 협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한편, 3국 정책 입안자에게는 시민 사회의 관점을 전달함으로써 3국 협력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보고서가 조명하는 2010~2020년은 3국 협력에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3국 협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협력 범위가 30개 영역 실무 분야로 확장되고, 제도화 수준은 더욱 고도화되었습니다. 현재 3국 협력은 3국 정상회의, 21개 장관급 협의체, 70여개 정부간 협의체, 그리고 100개 이상의 협력 사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캠퍼스 아시아>, <동아시아 문화 도시>, <지방 정부 교류>등 분야에서의 3국 간 다양한 협력 사업은 3국 협력의 진정한 의미와 인식을 지속 변화시켰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은 상호 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협력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3국 국민 복지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입니다. TCS는 한·중·일 3국의 유일한 정부 간 상설 협력 사무국으로서 지역과 국제 환경, 양국 관계의 역동성 측면에서 3국 협력의 지속 발전을 보장해 왔습니다. TCS는 동북아에서의 지역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유례없는 가치를 지닌 국제기구입니다. 3국 협력은 높은 수준의 제도화, 광범위한 분야, 풍부한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지역통합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계속할 것입니다. 저는 3국 협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3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입니다. 지리적 근접성, 인적 친밀성, 문화적 유사성은 한국, 중국, 일본 협력의 근본 기제입니다. 3국의 지속적 평화, 공동 번영, 문화 공유를 위한 3국 협력에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어우 보첸**

사무총장

목 차

# 3국 협력의 진전: 현실과 전망

---

## 제1부. 3국 협력 10년의 진전

제1장. 3국 협력 메커니즘의 확대 및 제도화	07
제2장.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11
제3장. 개발 및 환경 보호 협력	15
제4장. 문화·인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우호 관계 증진	18
제5장.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21
제6장. 향후 10년 전망	23
부 록. 2011~2020년 정상회의 및 장관급 협의체 회의 도표	27

---

## 제2부. 3국 시민과의 대화

장원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33
무쿠타 사토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전무	37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42
친즈, 국제따오기포럼 집행비서장	47
오카사카 켄타로,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53
최혜민, 전남 무안 초당대학교 조교수	58

제1부.

# 3국 협력 10년의 진전





## 서문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한국 제주, 2010년 5월)에서 채택된 '3국 협력 비전 2020'은 한일중 협력의 5대 주요 영역과 상세 목표, 그리고 비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3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해당 기간 내에 달성되어야 할 41개의 특정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3국 협력은 실로 괄목할 진전을 이룩했다. 본 연구는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목적으로, 해당 기간 3국 협력이 이룩한 다양한 진전 사항을 다음 6개 장에 걸쳐 포괄적으로 분석한다: △3국 협력 메커니즘의 확대 및 제도화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개발 및 환경 보호 협력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우호 관계 증진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향후 10년 전망

## 제1장

### 3국 협력 메커니즘의 확대 및 제도화

1.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대한민국 제주, 2010년 5월)의 '3국 협력 비전 2020' 채택 이래 10년 간 지속적인 노력은 협력 기조의 견실한 발전으로 이어졌으며, 3국 메커니즘의 제도화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어왔다. 3국 협력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1년, 2012년, 2015년, 2018년, 2019년 개최되었다. 각 회의는 장기적·전략적 측면에서 3국 협력을 위한 정치적 추동력을 지속 불어넣었다. 3국 협력을 위한 양자 관계의 중요성과 더불어 양자 관계 구축을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국과 일본, 중국은 정기적인 정상회의 개최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고, 회의 정례화를 위한 긍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0~2019년 개최된 제4차~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3국 협력의 미래 방향성 관련 진전 사항 공유 및 논의, 한일중 정상회의 준비, 지역 및 국제 이슈를 다루는 주요 구심점으로 기능했다. 3국은 2020년 3월 개최된 한일중 외교장관 화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코로나19 퇴치결의를 재확인했다.

△한일중 농업장관회의 △한일중 수자원장관회의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 △한일중 교육장관회의는 모두 지난 10년 기간 전반기에 발족되었다. 실질적 3국 협력이 약 30개의 중점 분야로 확대되었다. 2010년 17개였던 3국 장관급 협의체는 처음 10년의 후반기에 21개로 확대되었다. 10년간 고위급, 국장급, 실무급 회의 등 다양한 수준의 3국 대화 협의체 또한 46개에서 총 76개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한일중 대테러협의회, 한일중 사이버정책협의회, 한일중 고위급북극협력대화 등의 새로운 정책 협의체를 포함한다.

2. 3국협력사무국(TCS)이 2011년 9월 1일 대한민국 서울에 설립되어 3국 협력 제도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3국 정부가 2009년 설립한 3국협력사이버사무국(TCCS)의 발전된 형태인 TCS는 한일중 협력 장려를 위한 상설 사무국으로 기능한다. TCS는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3국 정상회의, 3국 외교장관회의, 3자 위원회 및 다른 장관급 회의, 그리고 3국 고위급회의와 같은 당사자 간 3국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적, 기술적으로 지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주요 협의체에 사무국 대표를 참석하도록 조치 △당사자 및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국제기구, 특히 다른 동아시아 협력체와 연락 및 조정 △당사자 간 잠재적인 협력사업 발굴 및 확인 그리고 그 사업의 채택을 위하여 관련 협의체에 대한 보고 △협력 사업 평가 및 보고서 작성, 필요 문서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3자위원회 또는 3국 외교장관회의의 승인을 위하여 연간 실적 보고서의 제출 △3국 협력 관련 중요 주제에 대한 연구 수행, 사무국 홈페이지 관리 및 3국 협력에 대한 이해증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TCS는 설립 초기 내부 역량 강화와 더불어 3국 정부 기관, UN, EU, ASEAN 사무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TCS는 설립 이래 모든 한일중 정상회의와 ASEAN+3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그리고 총 21개 3국 장관급 회의체 중 16개에 참가해 왔다. 3국 정부로부터 부여된 임무에 따라 다수의 공동 사업 및 독자 사업을 통해 외교, 안보, 경제, 지속가능 개발, 문화를 포함한 영역에서 3국 간 포괄적인 협력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TCS는 많은 수의 자체적 교류 사업도 개발했다. 3국 협력국제포럼(IFTC)은 2011~2021년 동안 9차례 개최되어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분야 내 3국 협력의 통찰을 공유하는 고위급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TCS는 3국의 젊은 세대 간 친밀한 관계 구축을 돕기 위해 청년 대사 프로그램, 신진학자교류프로그램, 캠퍼스아시아 동문 워크숍, 한일중 어린이 동화교류대회 등을 연이어 개최했다. 또한 TCS는 한일중 3국 언어학자들과 협업하여 2018년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TCVD)’을 출간했다.

3. 고도화된 3국 협력 제도화를 기반으로 비전통적 안보 사안에 대한 활발한 협력이 강화되었다. 동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다이치 원전 사고 발생을 계기로 3국 정상들은 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일본 도쿄, 2011년 5월) 직전 해당 재난 지역을 특별 방문했다. 재난과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상호 지원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3국은 한일중 지진협력청장회의,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 한일중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TRM) 등 기존 정부 간 협의체를 활용해 재난 위험 경감 및 원자력 안전 도모 노력에 대한 강력한 결의를 함께 표시했다.

2010년(대한민국 제주, 2010년 11월)과 2013년(중국 보아오, 2013년 1월) 두 차례 한일중 지진협력청장회의 개최 후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가 지진 협력에 대한 주요 협의체로 지정되었다. 동 회의는 12개 합동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협력을 강화했다. 2011~2013년 동안 3차례의 동아시아 지진 세미나가 개최되어 지진 대응 협력과 화산 및 쓰나미 등 관련된 재난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3국은 '2015-2030 재난위험경감 샌다이 프레임워크(SFDRR)' 글로벌 로드맵에 따라, 지난 10년 동안 격년 주기로 개최된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 지원 아래 3국 관련 기관들은 합동 훈련, 역량 개발, 조직화 및 정보 공유 강화, 기술 개발 등의 영역에서 긴밀히 소통했다. 동 정부 간 회의체는 기존 기관과 3국내 UN 지역사무소와 협력하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TCS는 3국의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과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2013~2016년 동안 3국 재난구호도상 훈련(TTX)을 4차례 주최했다. 3국의 관련 분야 전문가는 동 기간 중 2차례의 3국 재난관리전문가회의를 통해 한일중 재난관리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발굴했다.

제4차 TRM(일본 도쿄, 2011년 11월)에서 채택된 한일중 원자력안전협력이니셔티브에는, 2013년 제6차 TRM(중국 항저우, 2013년 11월)에서 실행될 정보교환체제 관련 기술적 세부사항과 10개의 실천 과제 목록이 포함되었다. 2014년 이래 3국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 플러스(TRM+), 합동방재훈련(JED), 합동 실무자 그룹 등을 통해 기술대화가 시작되고 훈련을 진행하는 등 실천 노력도 계속되었다. 3국 규제 담당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상 회의를 통해 공동 우려 사항과 이해관계 사안에 대한 교류를 지속했다.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와 TRM은 역내 인간 안보 강화를 위한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4. 3국 관련 당국은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세안 초국가 범죄 장관급회담, 아세안경찰총수협회(ASEANAPOL)등 체제 아래 원활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협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3국의 경찰 당국은 제27차 ASEANAPOL 콘퍼런스(싱가포르, 2007년 6월) 계기 처음으로 회동했으며, 2015년 경찰 당국 간 제도화된 3국 협의체인 한일중 경찰협력회의를 출범시켰다.

---

2018년까지 사이버 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밀매 및 긴급한 초국가적 범죄 해결을 위한 4차례 회의가 개최되었다. 3국 경찰당국 협력의 영역은 법의학과 화재 구조 분야까지 확대되었다.

## 제2장

### 공동 번영을 위한 지속가능한 경제 협력

5. 3국은 1999년 1,290억 달러 규모의 역내 무역을 2020년 6,460억 달러로 증가시키는 등 경제 협력 측면에서 눈부신 성과를 달성했다. 상품 및 인적 자원의 신속·원활한 이동의 중요성에 공감, 3국 관련 부처 장관은 3국 경제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제도화된 시스템 설립과 협상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제5차 3국 정상회의(중국 베이징, 2012년 5월)에서 ‘3국 간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었다. 3국 경제 협력에 관한 최초의 법적 체제인 이 협정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역내 무역 및 투자 환경의 근간을 마련,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사전 단계로 기능했다.

한중일 FTA가 3국 간 호혜와 역내 경제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는 모두의 기대에 따라 3국 간 관련 공동 연구가 시행되었다. 2011년 완료된 연구 결과 보고서가 제5차 3국 정상회의(중국 베이징, 2012년 5월)에 제출되었으며, 3국 관련 부처 지원 아래 2013~2019년 동안 16차례 3국 FTA 협상이 진행되었다. TCS는 협상 촉진 및 3국 FTA로 인해 파생될 잠재적 이익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해 3국 FTA 세미나를 5차례 개최했다. 두 번의 세미나는 협상과 맞물려 진행됐다. 3국은 역내 무역·투자 장벽 제거와 공급망·산업망 통합을 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추진 노력과 동시에 3국 간 FTA 가치 및 협상 추진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6. 3국 FTA 협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한일중 교통물류장관회의 아래 공급망 안전 협력 틀이 구축되었다. △막힘 없는 물류체계 실현, △환경친화적 물류 구축, △물류 보안과 물류 효율성의 조화 달성의 주요 목표에 따른 협력과 2018년까지 이행할 12개 실천과제가 채택되었다. 3국은 사회경제적 변화, 코로나19 대응을 반영한 새로운 행동 계획을 채택, 협력의 새로운 10년을 맞이해 핵심 목표를 재조정했다. 주요 성과로 동북아 물류정보 서비스 연계망(NEAL-NET)이 구축되어 컨테이너 현황 및 다이내믹 컨테이너 수송 선박 정보 실시간 공유 및 시각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2021년 10월 기준 3국 31개 항만이 이 연계망에 포함되어 물류 효율성과 무역의 흐름이 크게 개선되었다.

제10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대한민국 서울, 2015년 10월) 합의에 따라, 2015년 공급망 연결성 개선을 위한 3국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TCS는 2016년 4차례 실무 그룹 회의를 개최해 3국 공급망 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원했다. 제11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일본 도

교, 2016년 10월)는 실무회의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망 연결성 개선을 위한 3국 대화체 설립에 합의했다. TCS는 2017년 동 대화를 조정했다. TCS는 2021년 3국 관련 부처와 협업, 3국 교통물류 협력을 위한 공식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웹사이트는 역내외 대중에게 가치 있는 정보 제공, 3국 관련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조정과 정책 교류를 위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7. 세관 협력 강화가 역내 무역 촉진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공통 인식 아래 3국 세관 당국은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체제 아래 공통의 도전 요인 및 실질 대응 논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다.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대한민국 서울, 2015년 11월) 계기 채택된 '무역 원활화 세관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은 무역 친화적 기반 조성 및 국경이동 발전(cross border movement development)을 위한 세관 당국 역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제6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일본 도쿄, 2017년 11월)는 '한일중 세관협력 행동계획' 개정본을 채택, 3국 중장기 세관 협력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했다. 3국의 지적 재산권, 통관 집행·정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통관 절차 협력을 위한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구체적 기술적 협력 의제가 도출되었다.
8. 3국은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이 경제 성장의 핵심이라는 공통 인식 아래,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연구 역량 강화와 정책 협의를 위한 지원 확대 가능성을 탐색했다. 역내 디지털 단일 시장이 새로운 경제적 가치의 세대에서 3국 모두에 이익이라는 3국의 공통 인식에 따라, 제11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일본 도쿄, 2016년 10월) 계기 전자상거래 공동연구를 출범했다. TCS는 2017년 3차례 실무그룹 회의를 조정했으며 '3국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공동 연구 최종보고서'를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중국 베이징, 2019년 12월)에 제출했다. 3국 관련 당국은 동 보고서에 기반하여, 한일중 전자상거래 협력에 관한 민관 대화체 설치를 위한 추가 협력 조치를 마련했다.

한일중 과학기술장관회의의 주도로 과학 및 혁신이 경제 개발의 원동력이라는 공통 인식 아래 3국 과학기술 협력이 가속화되었다. 정부 간 협의체 지원으로 관련 협력은 3국 과학기술정책 세미나, 3국 청년과학자 워크숍 등으로 확대되었다. 장관회의 계기 발족된 공동 연구 협력은 과학과 기술 진보, 혁신 증진, 지역 및 국제 이슈 해결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기후 변화, 에너지 절감, 재난 방지, 수자원 순환 등 다양한 주제와 연관된 8개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한일중 연구지원기관장회의(A-HORCs) 관리 하 민간 분야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인 A3 미래예측프로그램(A3 Foresight Program)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핵물리학, 신소재 등 다양한 첨단과학 주제를 아우르는 30개 공동 프로젝트 성과로 결실을 맺었다.

9. 3국은 역내 농업 협력이 식량 안보, 농업의 산업화(agricultural industrialization), 바이오매스 에너지 개발, 농촌 활성화, 친환경 농업 개발, 동식물 질병 관리, 축산업, 국제 농업 협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한일중 농업장관회의가 2012년 시작, 2018년까지 3차례 개최되었다. 3국은 2019년 제14회를 맞이한 동북아 농업정책 연구 포럼을 포함한 여러 농업 관련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

제5차~제11차 한일중 수산연구기관장회의가 2011~2019년 개최됐다. 이를 통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 연구, 수산자원과 지속가능성, 수산물 안전성에 관한 연구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3국은 최근 제16차 3국 대형해파리 국제워크숍(2019), 3국 비정부 수산협정회의(2019) 등에서 협력했다.

10. 한국, 일본, 중국의 특허권 신청이 전세계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3국 간 협력이 중요해졌다. 3국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의 핵심인 한일중 특허청장회의(TRIPO Heads Meeting)가 지난 10년 간 해마다 개최되었으며, 2020년 12월 제20차 회의로 협력 20주년을 기념했다. 지식재산 정책 및 사용자 대상 최신 법률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청장회의 부대 행사로 TRIPO 유저 심포지엄이 매년 함께 개최되었다. 3국 지식재산 관련 부처는 △TRIPO 상표권 전문가 회의 △심판 분야 전문가 그룹 △디자인 포럼 △국제 지식재산 심포지엄 등 다양한 협력체를 통해 소통하고, 정례적으로 산하 교육기관 연계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11. 3국은 한일중 국장급 표준협의회 및 동북아 표준 협력(NEAS) 포럼을 통해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표준채택을 통한 무역 활성화를 추진했다. 제10차~제18차 NEAS 포럼이 2011~2019년 매년 개최되어, 기존 협력의 진전 여부 검토와 신규 협력 제언을 민·관 분야 여러 전문가와 함께 했다. 3국 공통 표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실무그룹 연구가 문화, 비관세 장벽, 신규 인프라 필요 영역 등에서 3국 관련 당국을 지원하고 있다.

12. 3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동북아 및 국제 금융체제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 당국 간 조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2020년 9월 한국, 일본, 중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20주년을 기념했다. 동 회의는 글로벌 및 역내 경제발전 정책대화를 위한 효과적 협의 플랫폼이다. 2021년 회의 계기 3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는 개방적이고 규칙 기반의 다자무역과 투자체제를 준수하고 아세안+3 금융 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지속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3국 장관과 총재는 역내 거시경제 조사 역량 강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이행, 아세안+3 회원

---

국 기술 지원에 대한 아세안+3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 일본, 중국이 AMRO 주요 회원국이라는 인식 아래 2019년 TCS와 AMRO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공동 이해관계, 각 기관 역량 강화, 역내 경제 및 금융 협력과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에 뜻을 같이했다. 3국 경제통상장관은 지역 경제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3국이 무역·투자 협력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3국 장관은 APEC, G20, WTO 등 다자적 틀에서의 협력 강화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 제3장

### 개발 및 환경 보호 협력

13. 한일중 환경장관회의(TEMM) 계기 시작된 3국 환경 협력은 정부, 연구기관,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층 협의체를 포함한다. TEMM은 3국간 21개 장관회의 중 가장 긴 역사와 높은 제도화를 기반으로 3국간 정례 협의체로서 성공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2010년 처음 채택되어 5년 주기로 개정되는 ‘3국 환경협력공동행동계획(TJAP)’을 통해 3국 간 구체적 협력이 실행되었다. 각 TJAP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순환 경제, 환경 교육, 대중인식 제고 등 8~10개의 우선 분야를 선정, 다양하게 협력했다.

환경 문제가 글로벌 도전 요인임을 인식한 3국은 주요 국제협약과 연계해 환경보호 부문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3국은 지난 10년 동안 △친환경적 회복 △생물다양성 보존 △지속가능 개발목표 △탄소 중립 등의 영역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14. 기후변화는 3국 환경협력 공동행동계획(TJAP) 우선 협력 분야다.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이 인식됨에 따라 관련 주제가 2015년 9월 유엔개발정상회의 계기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및 관련 역내 이니셔티브에서 광범위한 영역 간 공통 이슈로 논의되었다. 이는 3국이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연계된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2050년,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발표, 이에 따라 각 국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개정했다.

3국은 환경 협력 초기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 다자간 참여를 위한 중요 플랫폼으로 유엔 당사국총회(COP)를 활용했다. 제21차 TEMM(일본 기타큐슈, 2019년 11월) 계기 도시 지역 탈탄소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공동연구 결과를 COP25를 통해 글로벌 공동체와 공유했다. TEMM 협의체 아래 3국 차원 정책 대화, 세미나, 공동 연구가 한국, 일본, 중국 정부 및 전문가 간 정례 교류, 지식 공유,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3국은 역내외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감 및 적응, 3국 공통 이익에 기반한 접근, 친환경적 성장, 시장 메커니즘 촉진을 위해 노력했다.

15. 역내 생태계에 대한 기후 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잘 알고있는 3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생물다양성전략계획 2011~2020 △사토야마 이니셔티브 △아시아태평양 생물다양성 관측 네

트위크(AP-BON)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생물다양성 정보 이니셔티브(ESABII) △과학기술 협력 이니셔티브(BBI) 등 국제 및 지역 협력체를 통한 생물 다양성 보호와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에 높은 중요성을 부여한다. 3국 환경장관은 위 협력체 아래 긴밀히 협력, 정보 공유 및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3국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수립에 합의했다. 2013년 대한민국 인천에서 출범 이래 총 6차례 정책 대화가 개최되어,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 공유, 침입 외래종, 국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속 기여 등의 의제에서 3국 협력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16. 역내 순환경제와 건전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글로벌 차원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공통 인식 아래, 3국은 ‘건전한 자원순환사회/순환경제/3R/전자폐기물 초국경 이동’세미나를 개최, 관련 협력을 지속 유지했다. 본 세미나는 각 국의 폐기물 관리 정책, 3R(절감, 재사용, 재활용)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따른 국제 사회의 요청 검토를 위한 장으로 기능했다. 3국은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북서태평양실천계획-한일중 환경장관회의(TEMM-NOWPAP) 합동 워크숍을 개최, 순환 경제, 플라스틱 폐기물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조치 모색을 통해 국제 연안정화 운동을 포함한 국제 및 지역 이니셔티브를 지원했다. 해당 합동 워크숍을 통해 3국은 해양쓰레기 및 미세 플라스틱 관련 정보와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북서태평양 지역 해양환경협력 강화에 기여했다.
17. 3국은 환경 영역에서의 대중 접촉 확대를 위해 전문 교육자, 청년, 공무원, NGO 대표, 기업 등 다양한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 대중 인식 및 참여’를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이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활발히 운영된 환경교육네트워크(TEEN)는 환경 교육에 대한 지식 공유 및 상호 모범 사례 학습 촉진, 관련 이해당사자 연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합 제공했다. TEMM 청년 포럼은 미래 세대의 환경 보호 책임감 함양을 위한 중요 장으로 기능, 2011년 이래 100명 이상의 3국 청년이 참여했다. 비즈니스 영역의 환경에 대한 기여 확대를 위해 한일중 산업/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매년 개최되어 환경 관련 기술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한 도시 등을 의제로 논의한다. 3국은 각 국 공무원 대상 환경 강의, 토론, 현장 방문 등의 교육을 매년 제공하고 있다. 3국은 환경 교육, 특히 초등·중등 학생 교육을 위한 교사 역할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한다. TCS는 2017년, 2019년에 1차 및 2차 3국 환경교사 교류사업을 추진했다. TCS는 제 20차 TEMM(2018년 6월, 중국 쑤저우) 계기 한일중 환경 협력 20주년(1999~2018) 기념책자를 발간했다.
18. 황사 대응 국장급 회의, 황사 공동연구단 운영 위원회, 모니터링 및 예측, 조기 경고 실무그룹 I(WGI), 예방 통제 실무그룹 II(WGII), WGI·WGII 간 합동 워크숍 등 다양한 수준에서 3국 간 황사로 인한 지역 도전 요인 대응을 위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되었다. 14차례 WGI와 13차례

---

WGII가 개최되어 2020~2024년 중기 실행 계획을 설정했다.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위한 DSS 온라인 포털도 구축되었다.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중국 청두, 2019년 12월)는 3국+몽골의 미래 폭풍 예방 및 통제를 포함한 '3국+X 협력' 사업을 채택했다.

19. 2019년까지 '건전한 자원순환사회/순환경제/3R/전자폐기물 초국경 이동 세미나'가 13차례 개최되었다. 3국 순환경제 정책과 초국경 전자폐기물 이동, 재난 폐기물 관리 및 도시 폐기물 재활용 협력이 눈에 띄게 진전되었다. 전자 폐기물 이동을 위한 핫라인 연락망 구축은 폐기물 초국경 이동 및 관련 정보교류, 협력 촉진에 중요 역할을 했다. 3국 관련 기관들은 아시아태평양 역내 연구기관들의 통합 연구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아시아 바젤 포럼(Basel Forum for Asia)을 공동 출범시켰다.

## 제4장

# 문화·인적 교류와 협력 확대를 통한 우호 관계의 증진

20. '제5차 한일중 관광장관회의(TTMM) 공동 성명'(중국 항저우, 2010년 8월)에는 '3국협력 VISION 2020'에 명시된 우호·친선의 정신을 한일중 3국 간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담아내고 '동아시아의 조화 및 안정 그리고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관광교류와 협력을 통한 3국민의 실질적 혜택'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한 합의가 포함되었다. 이후 개최된 TTMM 선언문과 공동성명에는 △관광 신뢰도 보장 △서비스 품질 및 여행 편의성 향상 △안전 관리 확대 및 환경 보호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추가됐다. 제7차 TTMM(일본 도쿄, 2015년 4월) 합의에 따라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도 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동아시아 방문 캠페인' 공동 관광 사업이 2015년 시작됐다. 2016년 TTMM 체제에 통합된 교육 여행 심포지엄은 교육과 관광 분야에서 청년 교류를 확대하는 효율적인 플랫폼을 추가 제공했으며, 3국에서 평균 200~300명이 참여했다. 2018년 3국간 교류 방문자가 총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대한민국 서울, 2015년 11월)에서 발표된 '동북아 평화협력 공동 선언문' 목표를 달성했다. 제9회 TTMM(대한민국 인천, 2019년 9월)은 관광 교류를 통한 동북아 역내 평화 증진, 포용적 성장 실현,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공동 목표를 다시금 강조했다.
21. 2011년 정례화 된 한일중 문화장관회의(TCMM) 지원으로 지방 정부 차원의 3국 간 문화 친선 교류의 견실한 기반이 마련됐다. '상하이 액션플랜(2012~2014)'을 통해 '평화로운 우정, 동등한 호혜, 협력 강화, 동반 성장' 원칙을 토대로 동아시아문화도시(CCEA), 3국 예술축제, 한일중 문화컨텐츠산업포럼, 한일중 문화예술교육포럼 등 광범위한 공동 사업이 시작되었다. 2014년 시작된 CCEA는 3국의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도시 간 교류와 문화 발전 협력의 활성화를 추구한다. CCEA는 3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는 대표 사업으로 발전했다. 또한 CCEA는 제 6차 아세안+3 문화장관회의(2014년 4월, 베트남 후에) 합의에 따라 아세안 문화도시 및 유럽 문화 수도와 교류하는 등 역외로 확장됐다. 이에 더해 한일중 지방정부교류회의, 동아시아경제 교류추진기구,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 한일중 공무원 3국 협력 워크숍 등 다층 이니셔티브와 체제를 통해 3국 지방 정부의 연대 관계도 강화되었다. TCS는 따오기 국제 포럼 공동 주관, '한중일 지방도시 교류 조사보고서' 발간 등의 협력 사업을 통해 3국의 지방 정부 간 교류 활성화에 적극 기여했다.

한편 한일중 문화교류 포럼은 3국 문화 석학 및 전문가 간 교류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 TCS는 2018년 이후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TCVD)’을 출간 및 개정, 3국이 공유하는 한자의 문화적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TCS는 3국 문화 기관과 협력하여 한일중 PD 포럼을 후원하고, 아시아국제청소년영화제(AIYFF)를 지원하여 문화 사업 영역 확장과 인적교류 강화에 기여했다.

22.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대한민국 서울, 2015년 11월) 계기 시작된 한일중 교육장관회의(TEDMM)는 2020년까지 총 4회 개최되었다. 2012년 시작된 3국 대학 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의지가 4차례 TEDMM 선언문에 지속적으로 명시되었다. 2009년 시작된 정부 간 전문가 위원회인 한일중 고등교육교류 전문가위원회는 10년간 정기 회의를 개최해 교육 장관, 국가 고등교육 품질보증 기관, 캠퍼스 아시아 대학 및 민간 분야에서 대화를 촉진했다. 2016년에는 캠퍼스 아시아 대학 총장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한일중 대학총장포럼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TCS는 동문화 네트워크 개발을 통해 캠퍼스아시아의 노력을 지속 지원하고 있다.

정규 교육 과정 외 대학·고등교육 청년 교류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다. TEDMM은 한일중 어린이동화교류 프로그램 및 한일중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같은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지원했다. TCS는 청년대사 프로그램 같은 자체 연례 사업을 시작, 3국 청년 리더가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며 교육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계속하고 있다. 또한 TCS는 지난 10년간 AIYFF 및 3국 청년모의정상회의 등 같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관 기관들과의 신규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3국 청년교류 사업의 기반을 강화했다. TCS는 한일중 청년대화 등의 청년 교류 사업 결과를 다양한 출판물을 통해 3국 국민들에게 홍보했다.

23.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와 함께 3국 간 스포츠 협력도 강화되었다. 2016년 9월 신설된 한일중 스포츠장관회의(TSMM)는 2020년까지 3국 정부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TSMM의 결과물인 평창 선언문, 도쿄 행동 계획, 베이징 행동 계획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3국은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파생될 긍정적 효과를 제고하고, 스포츠 산업의 발전 및 공동 협력을 통한 스포츠 관광의 재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활동을 이행했다. 지난 10년간 3국 간 스포츠 협력이 지속 강화되어 왔다. 3국이 매년 순회 개최하는 한일중 주니어 종합 경기대회는 3국 고등학생 약 1,000명이 경기 및 다양한 문화, 관광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스포츠 교류를 통한 젊은 세대 간 상호 이해 심화에 기여했다. TCS는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2018년 5월, 일본 도쿄) 후속 사업으로 한일중 올림픽 로드 사진전 및 토크 콘서트 포럼을 개최하고 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를 사무국에 초청해 교류 시간을 가졌다.

24. 인간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 협력이 3국 협력에 특히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 일본, 중국은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THMM) △한일중 감염병예방관리포럼 △한일중 비전염성 질병 예방관리 심포지엄 △한일중 인구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체를 통해 △감염병 △임상 연구 △응급 상황 준비 및 대응 △식품 안전성 △비전염성 질병 △고령화 △보건 영역에서의 정보기술 활용 등의 분야에서 정책 대화, 경험 공유, 인사 교류를 강화했다. 팬데믹 기간 중에도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한일중 보건장관 특별영상회의와 제13차 THMM회의가 각각 2020년 5월, 12월에 열려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과 방역, 진단, 치료, 백신 등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강조됐다. 보건 부처의 적극 지원 아래 TCS는 2017년 THMM의 지속 발전과 이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기념, ‘한일중 보건장관회의 10주년 기념집’을 발간했다. 2020년 7월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안: 한일중의 경험과 우수 사례’ 세미나를 개최해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는 3국의 전문가가 모여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및 그간 경험을 나눌 공유의 장을 제공했다.
25. 한일중 3국은 인사행정과 인적 자원 관리 및 개발 분야에서도 협력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3차례의 한일중 인사장관회의와 7차례의 한일중 인사행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어 연관 정책과 사례가 토론 및 공유되었다. 또한 3국 공무원 간 상호 이해와 우호관계의 증진을 위해 한일중 중간관리자 공동훈련이 9차례 진행되었다.

## 제5장

#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26.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3국 공동의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다. 3국은 동북아 상황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층의 대화 채널과 협의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국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지속적인 역내 평화, 안보, 경제적 번영에 크게 기여한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 2007년 이후 6자회담 장기간 중단에도 불구하고, 3국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와 약속 준수를 촉구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초래할 도발 행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일본 도쿄, 2018년 5월)는 ‘2018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특별성명’을 결과 문서로 채택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역사적인 2018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했다. 이는 관련 당사국들의 가속적 노력이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우려의 포괄적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7. 악의적 사이버 공격, 테러리즘, 폭력적 극단주의가 국제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요인이라는 공통 인식 아래 3국은 사이버 범죄 대응, 대테러, 폭력적 극단주의 등 사이버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정책 협의체 강화에 기초한 공조 노력을 기울였다. 3국은 정보통신 기술 영역에서의 안보 위협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모든 산업 분야가 정보통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대한민국 제주, 2010년 5월)의 지원 아래, 2011~2016년 동안 3국 외교장관이 차례로 주최한 대테러 협의체가 4차례 개최됐다. 동 회의는 취약 지역 대테러 방지 현황, 해적 퇴치 협력, 사이버 안보에 대한 공동 대응, 폭력적 극단주의 퇴치 및 예방 조치 등 초미의 과제를 다루었다. 2013~2022년에는 한일중 사이버정책협의회가 5차례 개최되었으며, 3국은 해당 협의체를 통해 사이버 정책, 역내 및 국제적 사안, 3국 협력 체제에서의 미래 협력에 대한 견해를 교환했다.
28. 3국은 오래된 초국경 이슈인 마약 범죄, 식품 안전, 빈곤·기아, 감염병, 동물질병 등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 3국 협력체제 활용과 한일중 대테러협의회, 한일중 경찰협력회의, 한일중 농업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9. 한국, 일본, 중국은 다층적 3국 협력과 동시에 아세안+3(APT),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ARF)을 포함한 역내 주요 협의체 아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왔다. 3국은 동아시아 협력에서의 아세안 중심성을 지지하며, 아세안 커뮤니티 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국은 모두 국제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유엔, G2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국제 협력체제에서 상호 협력하여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방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3국은 유엔의 역할 강화, 권위, 효율성 및 유효성 제고를 위한 개혁 노력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한다.

3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큰 책임이 있음을 인지하고, 세계의 안정을 유지할 핵무기 없는 세상을 추구하기 위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아래 다른 국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했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비핵화에 대한 3국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3국 비핵화 협의체 설치를 위한 의견을 공유하고, 제6차 한일 중 정상회의(대한민국 서울, 2015년 11월)에서 각 국 핵안보 교육훈련센터 간 협력을 포함한 핵안보 강화 활동을 함께 지속했다.



## 제6장

### 향후 10년 전망

30. 3국 지도자들은 지난 10년의 마지막 기간에 3국 협력 20주년을 기념,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하고 △3국 협력 증진 △항구적 평화와 안보 유지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지지 △과학기술 혁명 선도 △역내 연계성 및 인프라 협력 강화 △2030 지속 가능개발의제 달성 약속 재확인 △문화와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상호학습 촉진 △전반적 활성화 및 공동 발전 달성을 위한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을 채택했다.

향후 10년이 국제 사회의 근본적 변화, 새로운 글로벌 성장 동인의 등장, 과학기술 혁명의 진전과 산업 전환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며, 3국 정상은 해당 성명을 통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에서 3국 협력에 임할 것과 평화, 안정, 지역 협력 및 세계 발전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 우호 및 상호 호혜를 모델로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전략적 문제에 대한 소통과 정치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차이를 적절히 관리하며, 장기적 평화·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3국 노력을 제시했다.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며,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른 모든 관련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대화 및 외교적 방법이 포함된 포괄적인 해결안의 추구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성명은 또한 기존 국제법규를 지키는 자유 무역과 다자주의의 정신을 준수하고,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 및 WTO 기능 강화에 필요한 개혁과 더불어 주요 가치에 대한 포괄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3국 FTA 체결 협상 가속화를 위한 3국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기존 협력체를 통한 지방 정부 및 기업 간 3국 협력 강화를 장려했다.

성명은 3국이 동아시아에서 각국의 문화적 전통을 기반으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개최할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고, 스포츠와 문화, 교육, 관광 영역에서 인적 교류 촉진 활동을 통해 3국 국민 간 이해와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3국 협력을 위한 안정적이고 건전하며 우호적인 사회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성명은 공통의 지역 및 국제 이슈 해결을

위한 디지털 경제와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과 혁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의 역내 연결성과 인프라 협력을 강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달성할 것을 제안했다. '3국+X' 협력은 3국의 협력 범위 확대와 지역 발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 3국의 공동 계획 설립과 집합 행동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31. 3국 협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달성했다. 제8차 한일중 교통물류장관회의(2020년 6월), 제 21차 특허청장회의(2021년 11월), 제 13차 원자력안전고위규제자회의(2021년 11월), 제9차 소비자정책협의회(2021년 12월), 제 22차 환경장관회의(2021년 12월)가 원격으로 개최되어 각 분야에서 3국의 실질적 협력 달성을 위한 방향성과 계획을 새로 설정했다.

제8차 한일중 교통물류장관회의는 특히 국제 물류 영역에서의 팬데믹 영향 해결을 위해 기존 목표인 '물류 보안과 효율성의 조화 달성'을 대체하는 '탄력적 물류망 촉진'이라는 주요 목표를 새롭게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행동계획을 재설정했다.

제 22차 TEMM는 2021~2025년을 기간으로 '제3차 환경협력 공동 행동 계획'을 채택, 3국이 공동 계획을 기반으로 중점 분야의 연계성 개선과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개발 목표와 대상 간 상호 의존성 촉진에 필요한 공동 행동에 힘쓸 것에 동의했다. 제 22차 TEMM은 보다 넓은 다자간 환경 프로세스에서의 공동 노력 강화와 '3국+X' 가능성 탐구를 통한 3국 협력 확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유엔 환경 총회,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COP),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FCCC) 회의에서 긴밀한 협력을 독려하자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 했다.

5개년 단위로 실행되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2020년 기준 39개 참가 대학과 17개의 교육 과정을 통해 사업 제 2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021년은 캠퍼스아시아프로그램의 신기원을 여는 한 해였다. 2025년까지 실행될 제3단계 사업은 참가 대상을 아세안 지역으로까지 확장했다. 향후 캠퍼스 아시아 사업은 동북아와 동남아 2개 방향으로 확장되어 67개 대학과 20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명칭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2022년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결과, 한일중을 포함한 아세안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간 역내 경제 통합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만들어졌다. RCEP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상당한 정도로 낮추고, 공급망과 상호교류를 강화함으로써 3국 간 경제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격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문서에 강조된 대로 3국은 2019

‘RCEP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명시된 각국의 이행 의지를 준수하는 한편, RCEP을 통해 기업 신뢰지수와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RCEP의 지역 기여도 강화, 글로벌 경제 성장, 역내 경제 통합 심화, 그리고 모든 참여국의 공정한 경제 발전 촉진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32. 사무총장 1인과 사무차장 2인으로 구성된 제6대 TCS 협의이사회가 TCS가 도약하는 두번째 10년이 시작되는 시점인 2021년 9월 출범했다. 팬데믹과 지역 및 국제정세의 역학관계 변화에 따른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여, TCS는 3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국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평화 △공동 번영 △공통 문화라는 방향 아래 장·단기적 관점에서 기존 기능을 조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TCS는 3국 정부 간 대화 및 협의체를 지원하고, 3국 간 상호 이해와 인식 제고를 위해 부여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우호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3국 관계 형성과 동북아시아 및 역외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 번영에 기여할 것이다.

부록.

# 2011~2020년 정상회의 및 장관급 협의체 회의 도표



## 2011~2020년 정상회의 및 장관급 협의체 회의

### 2011

일자	회의명	장소
1.14	제5차 한중일 정보통신장관회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1.18~1.20	제3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일본, 나라
3.19	제5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일본, 교토
4.24	제8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일본, 도쿄
4.28~4.29	제13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대한민국, 부산
5.4	제11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베트남, 하노이
<b>5.22</b>	<b>제4차 한일중 정상회의</b>	<b>일본, 도쿄</b>
5.28~5.31	제6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대한민국, 평창
7.29	제3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회의	대한민국, 제주
9.1	제14차 한중일 감사원장회의	터키, 이스탄불
10.28	제2차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	중국, 베이징
11.11	제4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일본, 도쿄
11.13	제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중국, 칭다오
12.16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대한민국, 경주

### 2012

일자	회의명	장소
2.1	제15차 한중일 감사원장회의	인도, 자이푸르
3.13	제1차 한중일 수자원장관회의	프랑스, 마르세유
4.8	제6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중국, 닝보
4.14~4.15	제1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대한민국, 제주
4.28	제3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중국, 상하이
5.3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필리핀, 마닐라
5.3~5.4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중국, 베이징
5.4~5.6	제4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중국, 상하이
5.12	제9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중국, 베이징
<b>5.14</b>	<b>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b>	<b>중국, 베이징</b>
7.16	제4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대한민국, 부산
8.1	제4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회의	중국, 다렌
11.7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중국 우시

## 2013

일자	회의명	장소
5.5~5.6	제1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일본, 기타큐슈
6.23	제5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회의	스위스, 바젤
9.27~9.28	제5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대한민국, 광주
10.30	제3차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	대한민국, 서울
11.14	제13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일본, 삿포로
11.24	제6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 2014

일자	회의명	장소
4.28~4.29	제1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대한민국, 대구
6.29	제6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회의	스위스, 바젤
8.24	제5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일본, 요코하마
9.19	제13차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호주, 케언즈
9.1	제16차 한중일 감사원장회의	러시아, 모스크바
11.10	제14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대한민국, 서울
11.23	제7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중국, 베이징
11.29~11.30	제6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일본, 요코하마

## 2015

일자	회의명	장소
2.1	제17차 한중일 감사원장회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3.21	제7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4.11~4.12	제7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일본, 도쿄
4.13	제2차 한중일 수자원장관회의	대한민국, 경주
4.29~4.30	제17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중국, 상하이
5.3	제14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아제르바이잔, 바쿠
9.1	제7차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9.4	제7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회의	터키, 앙카라
9.12~9.13	제2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일본, 도쿄
10.8	제15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페루, 리마
10.28	제4차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	일본, 도쿄
10.30	제10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10.31	제5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대한민국, 서울
<b>11.1</b>	<b>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b>	<b>대한민국, 서울</b>
11.17	제15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중국, 광저우
11.29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일본, 교토
12.19~12.20	제7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중국, 칭다오

## 2016

일자	회의명	장소
1.30	제1차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4.26~4.27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일본, 시즈오카
5.3	제16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7.28	제6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중국, 항저우
8.24	제8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일본, 도쿄
8.27~8.28	제8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대한민국, 제주
9.22~9.23	제1차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대한민국, 평창
10.11	제8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	일본, 도쿄
10.29	제11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일본, 도쿄
12.4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대한민국, 부산
12.8	제16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일본, 가나가와

## 2017

일자	회의명	장소
5.5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일본, 요코하마
8.24~8.25	제19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대한민국, 수원
8.25~8.26	제9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일본, 교토
9.7	제5차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	중국, 탕산
9.13~9.14	제9차 한중일 중앙은행 총재회의	대한민국, 인천
11.11~11.12	제10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중국, 지난
11.30	제6차 한일중 관세청장회의	일본, 도쿄
12.6	제17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대한민국, 제주

## 2018

일자	회의명	장소
3.19	제3차 한중일 수자원장관회의	브라질, 브라질리아
3.21	제2차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일본, 도쿄
5.4	제18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필리핀, 마닐라
<b>5.9</b>	<b>제7차 한일중 정상회의</b>	<b>일본, 도쿄</b>
5.28	제6차 한중일 정보통신장관회의	일본, 도쿄
6.23~6.24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중국, 쑤저우
6.18	제7차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8.30	제10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중국, 하얼빈
9.13	제2차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일본, 도쿄
9.18	제18차 한중일 감사원장 회의	베트남, 하노이
10.26~27	제8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중국, 쑤저우
11.10	제3차 한중일 농업장관회의	중국, 베이징
11.24	제10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회의	중국, 톈진
11.24~11.25	제11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일본, 구마모토
12.13	제18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중국, 우한



## 2019

일자	회의명	장소
5.2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피지, 난디
6.10	제11차 한중일 중앙은행총재회의	일본, 후쿠오카
8.21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중국, 베이징
8.30	제11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대한민국, 인천
8.30	제9차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대한민국, 인천
9.5	제8차 한중일 인사장관회의	일본, 삿포로
9.26	제19차 한중일 감사원장회의	러시아, 모스크바
11.23~11.24	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일본, 기타큐슈
12.4	제19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일본, 고베
12.5	제6차 한일중 재난관리기관장회의	대한민국, 서울
12.14~12.15	제12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12.22	제12차 한일중 경제통상장관회의	중국, 베이징
<b>12.24</b>	<b>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b>	<b>중국, 칭다오</b>
12.26	제4차 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대한민국, 서울

## 2020

일자	회의명	장소
1.10	제3차 한일중 교육장관회의	중국, 베이징
3.20	한일중 외교장관화상회의	화상 회의
5.15	한중일 보건장관 특별영상회의	화상 회의
6.29	제8차 한중일 교통물류 장관회의 특별세션	화상 회의
9.18	제20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화상 회의
12.1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	화상 회의
12.11	제13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화상 회의
12.24	제3차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화상 회의

제2부.

## 3국 시민과의 대화



## 장원링



-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위원
- 산둥대학교 석좌교수
- 산둥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장
- 산둥대학교 동북아시아학대학원 학술위원회 위원장

원문 중국어 서면 인터뷰를 국문 번역한 것입니다.

### TCS 처음 어떻게 한중일 3국 협력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장원링** 저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협력 프로세스를 연구하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아세안+3 정상 회의 당시 3국 정상 간 조찬회동부터 3국 간 별도 회의를 위한 협력 의제 설정, 3국 협력에 대한 공동성명 발표, 그 후속 협력 프로세스까지 동북아시아 협력이 진전되는 것을 면밀히 지켜봤습니다.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타당성 조사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3국 협력에 관한 다수의 보고서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 TCS 한중일 3국 협력에 관여 혹은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장원링** 동북아 3국 모두 동아시아의 경제 강국입니다. 긴밀히 쌓아 올린 경제관계 덕분에 한중일 3국 간 상호 이해가 증진, 공동 이익을 위한 초석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3국간 복잡한 역사와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 주도 협력에 있어서는 타이밍과 함께 구체적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계기 한중일 3국은 아세안+3의 형태로 지역기구에 공동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는 3국에게 협력 강화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아세안+3의 틀 아래 진행된 조찬 회동과 별도 회의, 한중일 간 협력 회의를 통해 3국 협력은 점진적으로 구체적 형태를 갖추며 강화되고 있습니다. 3국이 발표한 최초 협력 선언은 한중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습니다. 3국 간 협력지향적 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대등한 관계에 기반한 대화와 협력은 3국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이며, 미래를 위한 동북아 신질서 구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3국 대화와 협력프로세스는 양자관계의 긴장으로 자주 중단되었으며, 현재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자관계 개선이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로 양자관계는 아직 역사의 그늘에서 벗어나 견고히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한중일 3국은 상당한 협력 컨센서스에 합의하였고, 다양한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지만, 정치적 관계로 인해 시행까지는 다양한 어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한반도 대치 구도의 지속, 미중간 전략 경쟁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것들은 모두 3국 협력에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중단된지 2년째이며 다양한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한중일은 지속가능한 3국 협력 구축 및 계속된 유의미한 성취 여부와 더불어 만약 그러고자 한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가와 같은 시급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후퇴합니다.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한 협력의 결과가 무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한중일 3국 정부, 특히 국가 지도자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TCS**    **한중일 3국,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 한중일 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원립**    한중일 3국은 고난의 근대사를 경험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음에도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보고, 상호이해를 강화, 협력을 통해 공통 이익을 증진해야 합니다. 원만한 3국 관계는 동북아 안정의 전제조건입니다. 오직 3국 협력만이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북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인 동시에 불안정성, 잠재적 충돌과 위험이 팽배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전 세계가 크나큰 변화를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중일 3국 관계의 안정과 협력은 동북아,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현 시점에서 동북아의 가장 큰 문제는 평화와 발전이며, 그 중에서도 평화가 핵심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평화 상황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을 보며, 우리는 동북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가 무척 불안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한중일 3국 협력은 동아시아 전역의 협력 강화를 위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 평화 실현을 위한 노력은 한중일 협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3국이 신뢰에 바탕을 둔 양자 및 3자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중일의 발전 동력은 오직 협력을 통해서만 확보될 수 있으며, 평화 역시 오직 협력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국익과 대외관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3국이 협력하고자 한다면 차이를 존중하는 동시에 공통 기반을 마련하고, 협력이야말로 올바른 방향이며 포괄적 목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중일이 지는 무거운 역사적 부담은 오로지 점진적으로,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일부 분쟁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소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 관계의 파탄, 혹은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미국이 중국과 전면적 전략 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관계 및 이웃나라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현실이며,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강한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한국과 일본에게 대단히 중요하며, 협력을 통한 공존과 상호 호혜를 특징으로 하는 관계 구축은 한중일 3국 공동 목표입니다. 어쩌면 3국 간 협력에 대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3국 협력 재개를 위해 양자관계 개선을 기다리기보다는, 반대로 3국 협력을 통해 양자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TCS** **한중일 3국 국민, 나아가 전세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중일 협력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원링** 1. 한중일은 공통의 이익이 있으며, 그 기반은 공동의 평화와 발전입니다. 평화가 핵심 요소입니다.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충돌을 피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3국은 이를 위한 컨센서스에 합의하고, 21세기를 위한 평화 성명을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력과 발전은 평화의 초석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발전은 신기술 발전에 달려 있습니다. 한중일은 신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미중간 전략적 경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해야 합니다. 3국 협력에 기반한 동북아 경제구역 추진 체제와 더불어 동북아를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신기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신기술 지향적 경제 관계와 공급사슬이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게 될 상황에서 한중일 3국의 경제적 관계 역시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3국은 기업에 광범위한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한중일 FTA를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RCEP에 기반한 고위급의 개방적·협력적 FTA 체결 컨센서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RCEP는 3국 간 FTA 협상 가속화를 위한 초석입니다. 자유무역지대에 관한 고위급 합의는 RCEP의 개방성과 협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충돌 발생으로 인한 협력 프로세스의 약화 또는 이행 차질 방지를 위한 효과적 협력 체제 개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경제협력 외에도 공중보건, 사회문화 및 교육 분야 협력을 증진해 항구적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한중일 국민 간 교류와 상호 이해를 강화, 상호 인식을 개선해야 하며 우호 관계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동북아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위험한 대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컨센서스 합의 및 공동안보 증진을 위한 정치적 관계와 안보 협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5. 한국, 중국, 일본 간 화물 운송은 주로 해상으로 이뤄집니다. 상호연결성 실현을 위해 항만 네트워크 형성, 통관 인증 원활화, 무신고 통로(green channel) 개설 및 통관, 검역, 원산지 인증을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협력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는 동북아 연결성 증진 협력에 관한 의제 설정 추진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TCS**    **한중일 3국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정부 및 민간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장원링**
1.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가능한 신속 재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치적 컨센서스는 3국 협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이며, 지도자 교체로 인해 중단되면 안됩니다. 한국과 일본 정상 교체의 현 시점을 정상회의 재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2. 한중일 3국 대중의 상호 인식 개선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종식 후 3국 간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3. 3국 협력을 위한 지적 지원(intellectual support) 확대를 위해 TCS의 기능, 특히 협력의 제 설정 및 사업계획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사업을 통해 3국 간 교육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학생 교류 규모 확대를 위한 한중일 청년·학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중학생 교환학생 제도 운영을 위한 3국간 체계 구축, 대학과 연구소의 교류·협력 증진 등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 무쿠타 사토시



• 일본경제단체연합회 전무

원문 일본어 서면 인터뷰를 국문 번역한 것입니다.

**TCS** 처음 어떻게 한중일 3국 협력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무쿠타 사토시**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는 정부 및 경제단체, 국제기구와의 대화를 통해 외국 및 지역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양자간 위원회를 구성해 파견단 배치, 공동위원회 개최, 정부 고위관계자와의 회의 등 민간·경제 외교를 촉진해 왔습니다.

가령 중국과 관련, 저희는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CCIEE)와의 협력 아래 2015년부터 매년 ‘일중 CEO 및 전 고위관료 대화(일중 CEO 서밋)’를 개최해 중일 양국 경제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고 있으며, 한일 경제 관계 심화·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경단련은 2009년 10월 한국과 중국의 경제단체와 3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3국 비즈니스 서밋(1st Trilateral Business Summit)’을 개최, 한일중 3국 협력의 틀을 통한 교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경단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담당 임원인 저는 다양한 방식으로 3국 협력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특히 2015년 4월 개최되었던 2015 한일중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에서 ‘한일중 FTA 체결을 향해’라는 제목의 연설을 한 바 있습니다.

**TCS** 한중일 3국 협력에 관여 혹은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무쿠타 사토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일중 3국의 경제단체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고, 3국 정상을 초청하여 경제계와의 교류를 갖도록 하고 있습니

다. 2009년 제1차부터 2012년 제4차까지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은 매년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개최되었습니다. 제5차 서밋 이후에는 3국 간 정치·외교적 분위기에 다소 영향을 받아, 2018년 제6차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기까지 약간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있었던 제7차 서밋은 2019년에 개최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18년 경단련 주최로 도쿄에서 개최된 제6차 비즈니스 서밋이 가장 인상 깊습니다. 당시 3년 만에 만나게 된 한일중 3국 정상들 서밋에 초대하면서, 우리는 “한일중 경제계의 강력한 유대를 정상들에게 보여주고 이번 기회를 3국 간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치·외교 관계 발전의 계기로 발전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긴장된 상황에서 한일중 경제계 리더들은 3국 정상에게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결과 문서를 전달하였고, 참가자들은 환한 표정으로 회의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며 안도감과 성취감으로 벽차 올랐던 일이 바로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 **TCS** 한일중 3국,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 한중일 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쿠타 사토시** 한일중 3국은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중요한 이웃으로 인식하고, 정치·외교·경제·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오랜 시간에 걸쳐 긴밀하고 호혜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한일중은 상호보완적 체제를 형성하였고, 활발한 교역·투자 교류와 제3국 시장 내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일중 3국은 고도의 가치 사슬을 구축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기여국입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한 아시아 지역 강대국으로서 3국이 지속적으로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고 그 성과를 다른 국가와 공유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중은 글로벌 무역과 투자의 수혜자로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 경제질서의 유지·강화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무역과 투자 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었습니다. 한일중 3국이 이러한 성격의 이니셔티브에 함께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RCEP 협정은 3국 관계 강화에 있어 중대한 의의가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구 온난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자원·에너지 확보, 자연재해 대응 등 최근 몇 년 동안 수많은 글로벌 차원의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한일중 3국이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전 세계가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뿐 아니라 민간 부문도 3국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3국 정부와 기업이 뛰어난 기술·인재·경험 등에 있어 힘을 합쳐 여러 산업 전반에 걸친 협업을 진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고 합니다. 한일중 3국이 아세안 등과 협력해 이러한 아시아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TCS** 한일중 3국 국민, 나아가 전세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일중 협력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쿠타 사토시** 한일중 3국이 국내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가능한 다양한 잠재적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17개의 글로벌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이 국제 사회의 핵심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중국의 ‘대중창업·만중혁신’, 한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과 같은 국가 전략은 모두 디지털 혁명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응하며, SDGs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경제계 또한 디지털 혁명을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해양오염 등 환경 문제는 여러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문제이며, 한 국가 또는 지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한일중 3국은 반드시 힘을 합쳐 필요·적절한 조치와 계획을 조율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성과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은 2050년까지 달성을 약속한 반면, 중국은 2060년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3국은 미래지향적 접근을 기반으로 장기적 협업과 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일중 재계·공공분야·학계는 저탄소·친환경·자원순환적 생산 촉진과 생활양식 등에 대한 서로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실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과정에서 사회는 온라인 근무 및 소통의 방향으로 변화했으며, 이로 인해 비대면 기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기술 분야의 잠재력에 대해 전 세계가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한일중 3국은 주요 혁신 국가이며, 혁신이야말로 경제의 체질 및 효율성 개선, 경제 성장 방식의 전면적 변화, 자원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그리고 환경 부문에서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일중 3국은 세계 다른 지역보다 앞서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 세계는 3국이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개발의 선구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일중이 의료/헬스케어 상품·서비스 분야에서 서로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기업 간 구체적 협력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는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 나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TCS** 한일중 3국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정부 및 민간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쿠타 사토시** 한일중 3국은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모든 분야와 층위에서 소통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와 같은, 국가 지도자를 포함한 고위급 교류가 중요할 것입니다. 정부간의 긴밀한 주기적·지속적 소통은 3국의 양호하며 안정적인 정치·외교 관계를 한층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민간 부문 경제협력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탄탄한 정치·외교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3국 경제단체들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일정에 맞추어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을 조직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지속 성장을 위한 한일중 협력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이 한일중의 지속적 미래 발전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경단련은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위한 협력 등을 통해 3국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단련은 국내외 문제 해결 및 지속적인 성장 실현을 위한 권고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를 위한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으며, 이는 혁신적 기술을 십분 활용하고 경제 발전과 사회적 문제 해결 간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0년 11월에는 경단련 소사이어티 5.0을 통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국제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일중 3국이 '경쟁과 협력의 공존'이라는 접근법에 기반한 협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해 왔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한일중 3국은 2018년 평창, 2020년 도쿄, 2022년 베이징 올림픽·패럴림픽 등 평화와 스포츠의 축제를 여러 차례 성공

---

적으로 개최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도쿄와 베이징에서 개최된 올림픽에서는(코로나19로 인해) 외국 관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만 해도 한일중 3국 국민은 상호간 활발하게 방문하였고, 최근 외국어 학습 열풍의 영향으로 한일중 각국의 관광 명소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를 구사하는 관광객들로 가득했습니다. 한일중 국민들이 상호 방문을 재개하고 각국의 세계적 관광명소가 다시 활발한 분위기를 찾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한일중 3국 협력 분야에는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문화·인적교류·공공보건·환경보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3국 협력관계 발전을 지원해 왔던 TCS의 역할은 향후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경단련은 한일중의 미래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원

### TCS 처음 어떻게 한중일 3국 협력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정형곤** 제가 한중일 협력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NSC(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근무하다가 KIEP으로 옮긴 2006년 1월부터입니다. 당시 저는 KIEP 동북아경제협력센터에서 근무 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중일 경제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3국간 무역, 투자, 3국 산업간 가치사슬, 공급망 구조등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CJK FTA, 동아시아 경제통합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해왔습니다. 2006년 KIEP에 입사하면서부터 한중일 3국 정상간 합의에 의해 매년 수행된 한중일 공동연구에 참여했습니다. 이 공동연구에는 한국에서는 KIEP가 참가했고, 중국은 DRC, 일본에서는 IDE-JETRO가 참가해서 매년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했으며, 그 연구결과들은 3국 정상에게도 보고되었습니다. 약 10년간 한중일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연구했습니다.

### TCS 한중일 3국 협력에 관여 혹은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정형곤** 앞서 말씀드린 한중일 공동연구가 가장 인상 깊습니다. 매년 일본, 중국의 연구자들을 만나서 친분을 쌓고 같이 연구내용을 고민하고 했던 것이 기억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당시 한중일 FTA에 대해 여러 해 분야별로 연구를 했고, 이후 한중일 산관학 공동연구를 제안해서 3국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약 2년 정도의 산관학 공동연구 이후, 한중일 FTA 정부간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한중일 FTA가 진척이 없어 아쉽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산관학 공동연구는 한중일 공무원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일본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참가했고 일본 각 부처 공무원이 많은 의견을 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중일 공동연구를 하면서 연구 내용과 산관학 공동 연구시 3국 공무원들의 치열했던 토론도 기억에 남습니다. 공동연구회의 장소는 한중일 3국 여러 도시를 돌아가면

서 정해졌는데, 이것 역시 기억에 납니다. 아름다운 3국의 다양한 도시들을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힘든 공동연구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가 된 것입니다. 이 연구는 다시 또 하고 싶습니다. 3국 정상간 합의를 통해 한중일 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연구를 재개하고, 이를 통해 3국간 경제협력을 더 촉진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TCS** **한중일 3국,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 한중일 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형근** 한중일 협력은 경제적으로나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중일 3국은 상대국에 대한 생산 파급 효과가 커서 한 나라의 세계 시장에 대한 수출 증가는 다른 두 나라로부터의 수입을 증가시킵니다. 이처럼 3국은 상호간 가치사슬(Value Chain) 연계성이 강화되었으며, 수직 및 수평적 분업과 함께 경쟁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미중 갈등, 한중일 외교문제로 인한 여러 불편한 문제들이 한중일 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보면 한중일 3국이 제3국을 통해 서로를 대체하는 새로운 GVC 형성은 당분간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오랜 기간 기업들간 협력과 분업을 통해 형성된 현재의 공급망 자체를 급격히 변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3국간 경제적 의존도 역시 매우 높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은 개별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합리적 분업체계를 형성하는데도 중요합니다.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한중일 3국은 보다 더 협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동아시아지역에서의 한중일 협력도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가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RCEP에서 한중일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한중일이 경제협력 표준을 이끌어가고 더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야만 합니다. 한중일이 RCEP에서 CPTPP에 버금갈 정도의 개방과 높은 수준의 협력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 RCEP 회원국들이 CPTPP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이미 RCEP회원국 중 7개 국가가 CPTPP에 가입해있고 추가로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RCEP과 CPTPP에 동시에 가입해 있는 일본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한중일이 협력을 강화해야 장차 RCEP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TCS** 한중일 3국 국민, 나아가 전세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중일 협력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형근** 한중일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0%대에서 더 커질 것입니다. 현재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경제성장은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 국민들은 상호 경제협력 활성화를 통해 서로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최대한 발휘,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3국간 협력사업을 보다 더 공고히하고 체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3국간 경제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한중일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TCS의 역할과 기능이 유럽통합을 주도한 EU 집행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보다 훨씬 더 강화된 권한과 조직을 바탕으로 3국간 협력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리더십으로 ECSC와 EURATOM 그리고 EEC를 설립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이들 기구에 부여함으로써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오늘날 통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이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은 점은 여타 협력사무국이라 할 수 있는 APEC 또는 ASEAN 사무국과 확연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TCS도 부분적으로 초국가적 권한을 부여받아 협력사업의 집행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집행과정을 관할하고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해결할 수 있고, 한중일의 경제협력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TCS** 한중일 3국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정부 및 민간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형근** 3국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존재하는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TCS의 역할과 기능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다음 10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TCS는 설립 목적을 보다 더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한중일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또는 조약)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은 현재 직면한 3국간

외교, 안보적 이견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에 대한 집행권한이 TCS에 보장되어야 현재 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한중일 협력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TCS도 EU 집행위원회와 같이 3국간 협력 사업을 강제하거나 시정을 권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초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TCS가 사무국에서 집행위원회로서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한중일 사무국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만들어질 협력사업의 추진 및 관리를 주도적으로 함으로써 한중일 통합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사무국의 역할을 경제협력의 제도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화,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비롯한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3국간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연구도 추진해볼만 합니다. TCS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3국 연구기관에 공동연구를 맡겨서 정책 제안을 받고, 이를 통해 3국 정상회의 등 공식적 협의 과정을 통해 이행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넷째, TCS의 역할 관련 현재 3국간 협력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경제 및 비경제적 장애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제안과 협력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중일 3국간 원자력협력 문제는 그 중요성과 위험성을 감안하여 EURATOM과 같은 ‘동북아 원자력 협의체’를 만들어 원자력 발전소의 공동관리 및 기술개발 등의 협의체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한중일 정상회의가 재개되어 각종 협력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한중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TCS 협력사업의 탈정치화가 필요하고, 3국 국민들이 공통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중일이 서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있어야 하고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없어야 합니다. TCS가 이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를 권고합니다.

여섯째, 한·중·일 3국 상호간 안보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안보환경평가보고서 발간이 필요합니다. 현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이런 구상을 실현시킬수 있도록 한중일 3국이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일곱째, 1.5 Track 형태의 한·중·일 외교안보 대화를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상호간 안보 위협에 대해 인식의 공유를 넓히고 미래지향적 사고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한·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단순한 협력의 심화를 넘어 통합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한·중·일 3국을 포함한 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홉째, 한·중·일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협력사무국을 중심으로 East Asian Common Heritage 발굴 및 증진 사업을 전개할 것을 권고합니다. 공항에서의 한·중·일 3국민 전용 입출국 통로를 설치하는 것도 이런 종류의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한중일 협력 사업이 보다 더 공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초국가적 권한 이양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환경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이 이런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협력의 질적 수준을 높이며, 협력사업의 집행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해 간다면 한·중·일 간 경제협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 친즈



- 국제따오기포럼 집행비서장
- 동북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홍보대사
- 산시성 대외친선협회 회원
- 대한민국 창녕군 명예시민
- 뉴스 포털 시나산시 편집장

원문 중국어 서면 인터뷰를 국문 번역한 것입니다.

### TCS 처음 어떻게 한중일 3국 협력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친즈** 3국 협력을 처음 접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한중일 우호 교류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례는 당나라 시대(619-907) 때 일본에서 중국으로 사절단을 파견한 역사적 사건으로, 이는 당시 양국간 우호 관계가 정점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3국 커뮤니케이션 및 협력 진전 상황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 한국을 수차례 방문하여, 과거 세대의 우호적 교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국 협력이 어떻게 현실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찰하면서, 각국 국민들이 더욱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사회생활 초기 시절에는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님, 히라야마 이쿠오 일본·중국 우호협회장님, 김하중 전 주중한국대사님 등 중국에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신 일본과 한국의 고위 공직자분을 만나 뵙고 그분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 분들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며 3국 협력 필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국 협력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의 사무총장이셨던 양허우란 대사님을 만나 뵙며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TCS를 첫 방문했던 2017년 7월 28일 양 대사님을 뵈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대사님께서는 3국 협력의 역사를 살펴보며, TCS는 3국 정상회의, 3국 장관급 회의 및 수십 개의 실무급 회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다층의 협력 체계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TCS의 임무 및 3국 간 협력 현황과 관련된 풍부한 이해를 갖게 되었으며, 3국 우호 교류 협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념을 굳건하게 해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따오기를 주제로 문화 교류 행사를 몇차례 준비했습니다. 3국의 청년 교류 증진 및 지방 정부 협력 확대에 특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TCS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이어진 TCS 방문을 통해 양허우란 사무총장님,

이종현 사무총장님, 미치가미 히사시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차장님들과 영광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TCS** 한중일 3국 협력에 관여 혹은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친즈** 이번 질문에 답하기 전, 먼저 지난 몇 년간 제가 담당했던 일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7~2019년 기간 동안 저는 '따오기'를 주제로, 3국간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와 지방 정부간 협력 증진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과 함께 최초로 한중일 따오기를 주제로 다양한 교류회의를 진행했으며, 2019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 따오기 포럼을 TCS와 공동으로 주관하였습니다.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는 따오기 문화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TCS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함께 이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시성 차(茶) 산업 대표단, 청년 교류단, 따오기 서식지 지방의 정부 방문단, 안강 지방정부 방문단 및 도교 문화 교류 그룹 등 일본 및 한국 방문단을 준비하여 교류를 증진하였습니다. 중국 산시성 안강시와 일본 마키노하라시 간 자매 도시 결연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산시성 양현 지역과 일본 사도 지역 그리고 안강시와 한국 부안군 간 자매도시 결연을 위한 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도쿄에서 첫 3국 도교문화 대화를 조직했습니다. 아쉽게도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이러한 국제 교류 및 협력 업무의 진전이 다소 지체된 상황입니다.

일련의 경험에서 가장 인상깊은 것은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고비가 없지는 않았으나,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여 궁극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간 미래 협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3국 간 고위급 및 정부 간 교류는 그 중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위로부터 시작되는 노력인 정치적 리더십과 정부의 추동력도 필요하지만, 더 견고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협력은 국민, 기업, 그리고 사회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상향식 접근법은 고위급 3자 관계를 견인할 강력한 동인이 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층 더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이며, 공고한 3국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TCS** 한중일 3국,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 한중일 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즈** 한중일 3국 협력의 의의는 역내 발전과 전 세계의 발전이라는 측면,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는 글로벌 지역사회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3국 협력은 동아시아 지

역 협력 도모를 위한 필수 요소이자 동력의 근원이며, 지역과 세계 평화 추구를 위한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아시아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이자 강력한 엔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3국 협력이 공식화된 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수없이 경험하며 많은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굳건한 상호 신뢰 관계가 협력 강화의 기반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상호 신뢰는 깊이 있는 이해관계를 통합할 때 촉진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마음이 진심으로 이어지고, 입장의 차이가 적절히 조율될 때 굳건해 집니다.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형태의 구조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이미 협력을 위한 기반을 다져 놓았습니다. 3국 협력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다툼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경쟁과 협력 동시 이행이야말로 3국 관계의 이상적인 형태가 될 것입니다.

저는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우호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발현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이 동아시아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리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한중일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17%에서 현재 24%로 증가했습니다. 3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강국이며 3국의 누적 경제규모는 유럽 연합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경제 규모와 문화적 깊이, 그리고 발전의 역동성을 생각할 때 지금이야말로 3국의 탁월성을 본격 발휘할 시기입니다. 3국은 국민을 위한 복지 개선, 상호 이익과 호혜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역내 통합, 그리고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TCS** 한중일 3국 국민, 나아가 전세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중일 협력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즈** 중국과 일본, 한국은 서로에게 주요한 이웃 국가이며, 각각 세계 2대, 3대, 그리고 10대 경제 강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상당 부분 중요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며 시대 변화에 발맞춘 변화이기도 합니다. 한중일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미래에 더 많은 가능성과 더 큰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잠재적 기회를 목도한 바 있습니다.

저는 다음의 분야와 관련하여 향후 10년간 3국 협력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1. 코로나19 시대 경제 안정과 회복을 위한 협력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 경제 협력 강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과 안정 확보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역내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협업 증진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전세계 경제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했습니다.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은 이미 코로나19 예방과 관리 업무에서 상호 지원과 협력을 이어오며 타국에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3국은 협력 강화, 팬데믹 종식, 경제 회복에 노력을 집중하는 한편, 동아시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 2. 언론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언론 간 교류와 협력은 장기간 효과적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20년 이상 언론계에 몸담은 저는 이러한 3국 언론 교류와 협력의 부재가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 체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3국 언론 업계는 상대에 대해, 그리고 상대 나라와 문화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언론 간 정기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화된 메커니즘이 부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 협력 및 교류 촉진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플랫폼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인해 오해와 편견이 발생하고, 언론에서 비롯된 왜곡과 비방은 쉽게 상대를 오해하게 하며 이는 다시 신뢰와 선의의 붕괴로, 그리고 3국 협력의 기반이 되어야 할 대중의 의견과 믿음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 3. 문화·인적 교류의 잠재력 활성화

중국에는 “백성 간 우정은 우호적 국가 관계의 근간이고, 진심어린 대화로 우정이 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인적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끈끈한 연대감의 형성입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은 문화·인적 교류가 가져올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존 협력 분야를 더욱 공고히하고, 이러한 협력의 강화가 추가적으로 교류 활성화 및 우호적 연대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청년 간 우호 교류에 집중하기 위해 더 많은 ‘청년 플러스(Youth Plus)’ 이니셔티브를 추진함으로써 젊은 세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예전 서로에게 우호적 입장을 견지하던 3국의 장년층이, 젊은 세대가 3국의 상호 신뢰를 구축, 촉진할 기동으로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거나 거동에 어려움을 겪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세대 간 격차를 이어주는 중간자가 없는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문화·인적 교류 촉진의 지속을 위해 생태계와 청년,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따오기 관련 프로젝트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즉, 과거 ‘당나라 왕조를 방문한 일본 사절단’의 모습을 이 시대에서도 구현(예: 청년 및 문화교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도교나 차(茶)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예: 도교 문화 및 아이디어, 차 문화, 차 업계, 지방정부 관련)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예: 자매도시 결연 및 산업계 협력) 등 다수의 이니셔티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지방 정부가 참여하여 한중일 문화 교류가 한층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 TCS 한중일 3국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정부 및 민간 모두 포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친즈**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 그리고 중일 수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3국은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며 수교 설립 당시 세웠던 본래의 목표를 준수하며, 우호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3국 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 3국 협력은 세계 다른 어느 나라간 협력보다 더 탄탄한 기반에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당나라로 파견되었던 일본 사절단을 3국 대화와 협력의 시초라 한다면 현대 3국간 협력은 시공간과 역사를 초월한 두 번째 대화로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전 덕분에 3국간 대화는 1300년 전 보다 훨씬 수준 높은 결실을 맺게 될 것이고 당사자들은 물론 역내 그리고 전 세계에 혜택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저는 특히 다음 분야에서 3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 정치적 상호 신뢰 강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는 모두 냉전에서 비롯된 각자의 상처와 역사적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조건, 상호 갈등, 상호 신뢰 부족이라는 문제는 3국 협력 발전의 장애물로 남아있습니다.

#### 2. 선의의 언론 구축

언론은 한중일 국민이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만 때로는 거울에 먼지가 쌓여 왜곡된 이미지를 전달합니다. 언론업계의 교류와 커뮤니케이션을 주기적으로 이행, 3국이 서로에 대한 선의를 회복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여 우정을 쌓을 수 있도록 중간자와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 보다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교류, 협력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3. 인적 연계성 촉진

우리가 '전통적(hard)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등 '전향적(soft)'방식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인적 교류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이어진다면, 당면한 문제의 원인을 보다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통해 함께 더 많은 일을 더 쉽게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실질적 협력 촉진

교류와 협력을 통해 3국은 우정이라는 꽃을 피우고 협력이라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3국이 이룩한 결과물은 나아가 한층 강화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강력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

### 5. 메커니즘 강화

TCS의 설립은 메커니즘의 혁신을 이룬 중대한 발전의 한 걸음이었습니다. 어렵게 결실을 맺은 3국의 노력이 앞으로 더 활짝 꽃을 피우게 되기 바랍니다. TCS에는 앞으로 국제 위상을 높이고 3국간 협력과 조율을 증진하며, 보다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개발과 혁신을 달성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TCS의 역할이 대화의 촉진에서 그치지 않고 경이로운 결실과 발전을 더 많이 이루어 내리라는 점을 굳게 믿습니다.

## 오카사카 켄타로



• 교도통신 서울지국장

원문 일본어 서면 인터뷰를 국문 번역한 것입니다.

**TCS** 처음 어떻게 한중일 3국 협력을 접하게 되었습니까?

**오카사카 켄타로** 저는 TCS가 출간한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을 계기로 처음으로 3국 협력 이니셔티브를 알게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에서 사용되는 공통 한자 어휘에 대한 사전은 서로 하여금 3국이 문화적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해주었습니다.

학생 시절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기차에서 중국 청년 두 명과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함께 얘기해보고 싶었지만 저는 중국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제가 한자를 사용한다는 걸 알아채고, 필담을 주고받아 기차에서의 짧은 시간동안 꽤나 친해졌습니다. 제가 일본으로 귀국한 후 그때 만난 청년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기차에서 잠든 제 모습을 찍힌 사진도 함께 담겨있었습니다. 우리는 글자뿐만 아니라 유머 감각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좋은 낯선 기억입니다.

지금의 서울지국장 업무를 맡기 전 서울에서 1년간 어학연수를 했습니다. 대개 일본, 중국, 서양의 젊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고급반으로 진급할수록 많은 한자 어휘가 강의에 등장했습니다. 일본, 중국 학생의 학습 속도가 다른 지역 학생들 보다 특히 빠르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과거에 비해 한자를 덜 사용하긴 하지만 국어사전을 보면 한자가 여전히 한국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이 여실히 나타납니다. 『한중일 공통 한자어 어휘집』은 한중일 3국 전문가와 언어학자 간 협업의 결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통 한자어 외에도, 앞으로 각 국의 불교 문화, 요리법 등 3국이 공통으로 공유하고, 비교 가능한 문화적 주제도 배울 기회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TCS** **한중일 3국 협력에 관여 혹은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오카사카 켄타로** 2019년 5월 한국 경상남도 창원군에서 40마리의 따오기가 하늘로 날아오르던 때입니다. 그때 느꼈던 벅찬 감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따오기는 천연기념물이나, 1979년 비무장지대(DMZ)에서 마지막 관찰된 이후 한국에서는 멸종되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2008년 친선의 의미로 중국에서 선물받은 따오기의 인공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10년 뒤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다시 한국 창원군에서 따오기들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20대 시절 일본의 따오기 서식지인 사도섬에 위치한 니가타지국에서 일했습니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오기에 관심을 갖게 돼 한국에서 따오기 관련 취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창녕 따오기 방사 행사에는 사도시와 중국에서 온 대표단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따오기가 중국과 일본, 그리고(한반도) 남북을 오가며 지역 평화와 생태계 복원의 상징이 되길 바란다”는 당시 한국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의 말씀에 깊이 감명받은 기억이 납니다. 각 국 지방정부 담당자도 당시 따오기 관련 인적 교류 활성화에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두 달 뒤 서울에서 따오기 국제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아이들이 손을 맞잡고 한국의 따오기 동요를 합창한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TCS** **한중일 3국,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 한중일 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카사카 켄타로** 두 번의 세계 대전 후 그 경험을 기반으로 유럽은 유럽연합(EU)을, 아프리카 대륙은 아프리카연합(AU)을 결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에서는 이 같은 지역 연합이 결성되지 않았고 이것은 오랜 기간 역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역내 연합의 부재라는 현 상황의 근본 원인은 결국 3국의 정치적 방향성 격차와 역사 문제에서 비롯된 상호 이해 및 신뢰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동아시아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주목받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악화된 한·일 관계와 한국 내 반중 정서 심화 상황에서 당장의 3국 협력 강화에 필요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유엔 업무 담당자로 뉴욕지국에 기자로 근무할 때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 국제회의의 장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3국 간 유엔에서의 대립은 역사 이슈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서방 외교관들은 그런 3국의 모습을 지켜보며 동아시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이웃나라들과와의 다툼과 대립이 잦은 지역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문에 한국, 일본, 중국 3국이 가능한 모든 협력을 촉진, 상호 불신을 타파하고 신뢰가 충만한 관계를 추구하는 모든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3국은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서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TCS 설립 자체 또한 3국 정부 협력의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한중일 청년대사 프로그램, 캠퍼스 아시아, 지방 정부 교류 등을 통해 3국은 여러가지 형태로 광범위한 직접소통을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기초로 3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2년 2월 작고하신 전 문화부장관 이어령 한중일 비교문화연구소 전 이사장님이 2008년 교도통신 인터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중일 각국이 자국 이익을 진정 이해하게 된다면 협력과 동시에 경쟁할 수 있게 되고, 강력한 3자 관계 구축을 위해 힘을 합할 것이다”. 이어령 전 이사장님은 어느 국가도 1등이 되지 않는 상호의존 관계가 최고의 협력 형태라고 강조하셨습니다. 3국과 아세안 회원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022년 초 발효되어 무역 확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국 상호 신뢰가 한층 공고해진다면 동아시아 역내 긴장 완화는 물론, 우발적 군사 대치 상황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아시아 이웃 국가 간 상호 우호 관계와 협력을 국제 사회에 보여준다면, 현재 분쟁과 군사 대치 상황에 처한 여타 지역에 우리가 모범사례가 되어 긍정적 메시지도 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TCS**    **한중일 3국 국민, 나아가 전세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중일 협력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카사카 켄타로**    국경을 넘나들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초국경적 이슈 해결이야말로 3국 협력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기오염, 코로나19, 보건 문제 등 긴급한 해결을 요하는 국제 이슈 관련 3국이 직접 경험을 통해 학습한 지식을 공유, 해결을 위한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면 전 세계에서 한국, 일본, 중국의 입지는 더 강화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사회 및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도 3국이 서로 힘을 합해, 전 세계 모든 어린이가 함께 살아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은 한때 원조 수혜국이었습니다만, 이후 거듭 성장해 이제는 모두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3국 총 GDP는 세계 GDP의 25%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저는 3국이 함께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동 원조 패키지 프로그램 및 해외 개발원조(ODA) 이행을 제안합니다. 단일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 부담으로 이행이 어려울 수 있으나, 3국이 함께 행동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ODA는 행위국의 외교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저는 ODA가 3국 이미지 쇄신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한국은 한강의 기적, 민주화와 함께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로 개발도상국에 큰 영감을 줄 수 있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에 대한 공격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재정기여 부문에서 중국과 일본은 각각 2위, 3위입니다. PKO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 지원 제공을 위해 한일중 3국이 협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3국이 공동으로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인구감소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각국이 이행 중인 노력을 공유 및 학습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최근 진행한 인터뷰는 귀농 후 옛날 집을 활용한 카페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청년들에 대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통해 교외 지역 재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창업가 지원 현황, 인스타그램의 사업적 활용, 지역 크리에이터 개념 등 다방면의 주제를 다루었고 이와 함께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필요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한일중 정상은 2019년 정상회의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지역 내 평화 및 안정의 유지가 3국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여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일본은 원자폭탄의 피해를 겪었던 국가로서, 그리고 한국은 한반도 당사국으로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며 지금이 바로 3국 협력이 필요한 적기입니다.

**TCS** **한중일 3국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정부 및 민간 모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카사카 켄타로** 민간 분야의 교류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처럼 상호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양자 협력, 또는 3국 협력 증진에 대한 대중의 기대 제고가 어렵습니다. 타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거나, 타국 국민과의 직접 교류 없이 그 나라의 이미지만으로 나라를 싫어하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이웃 나라와 직접 교류함으로써 진정으로 그 국가를 이해 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올해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 2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일·중 수교 50주년이자 한·중 수교 30주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념비적인 시기를 3국 교류 증진을 위한 기회로 삼

으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올해 2월 TCS가 처음으로 개최한 3국 스피치 콘테스트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일중 청년들은 3국 요리와 음악, 장례 문화, 설화 속 괴물 등의 문화적 주제로 독특하고 흥미로운 스피치를 선보였습니다. 3국 언어를 모두 사용한 경연에서 1위를 차지한 한국 대학생은 “다른 두 나라 참가자들로부터 배울 점이 많았으며, 3국 국민의 우호적 관계를 서구권에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작년 여름 한일 셰어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 총 일곱명의 한국과 일본 학생들은 두 달간 함께 생활했습니다. 본 사업 건으로 진행한 인터뷰도 제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면서도 역사를 주제로 토론을 나누었는데,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입모아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지식의 격차나 오해의 간극을 줄일 수 있었다.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태도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업은 민간 부문에서 진행했지만, 만약 정부 지원으로 이러한 기회가 확대되어 3국 출신 청년 모두가 참가한다면 우리 청년들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3국 정치 지도자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 요소입니다. 역사 인식 문제, 영토권 문제가 3국 간 여전히 있고, 외교적 긴장관계의 원인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적극적으로 3국의 인적교류 지속 필요성과 메시지를 강력히 전파하고, 3국 간 교류가 위축이 아닌 증진될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기사로 다룬적 있습니다만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칭다오 개최 이후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3국 관계가 경직된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만나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단순 덕담을 위한 자리일지라도 3국 지도자가 가능한 조속히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

## 최혜민

---



- 전남 무안 초당대학교 조교수
- 현CAMPUS Asia-BESETO 동창회 한국 측 대표

---

### TCS 처음 어떻게 한중일 3국 협력을 접하게 되셨습니까?

**최혜민**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떠나 미국에서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저의 모국인 한국과 인근국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 귀국 후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에서 동아시아 관계를 공부하였습니다. 졸업 직전, 한중일 BESETO CAMPUS Asia 프로그램 1기 선발공고를 본 것을 계기로 과감히 졸업을 미루었고, 중국 북경대에서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일본 도쿄대에서 복수 학위 생으로 1년간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CAMPUS Asia 프로그램이 제가 직접 경험한 첫 한중일 3국 협력이었습니다. 제 지식, 고정관념, 나아가 인생을 바꾸어 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부를 마친 후, 첫 직장의 한중일 교류프로그램 담당자로 사회에 발을 내딛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TCS 한중일 3국 협력에 관여 혹은 참여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최혜민** CAMPUS Asia 프로그램은 한국 교육부와 중국 교육부, 그리고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사업단(학교)을 선정하고, 학생들 간 밀접한 교류를 촉진하는 일종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입니다. 짧게는 한 학기, 길게는 1년 간 참여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열린 마음을 갖고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여러 사회적 이슈 또는 3국 간 공통 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토론합니다. 역사, 정치, 문화 등의 이슈가 다양하게 얽힌 3국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느낀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존중하는 마음이 돋보였던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며, 그때 만난 친구들은 저의 영원한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TCS** 한중일 3국, 나아가 동아시아 지역과 세계에서 한중일 협력의 의의와 중요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혜민** 한중일 3국 협력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아시아 경제위기가 있었던 1990년대 말부터 이루어져왔고, 2011년에는 3국 정상 합의 하에 한중일 3국협력 사무국(TCS)이 설립되었습니다. TCS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의 협력을 강화 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각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3국 협력은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세계적 이슈들이 대부분 서방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그 시선이 한중일 3국이 위치한 동아시아로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에서 한중일 협력의 중요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맞이해 3국 경제는 북미, 서유럽과 함께 세계경제의 3대 축 중 하나가 되는 등 세계 경제에서 3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3국 내외 간 인적 및 물적 교류는 각 국에게 높은 경제 승수 효과를 동반했으며, 3국이 사회 분야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중일 3국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할 것이며,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것입니다.

**TCS** 한중일 3국 국민, 나아가 전세계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향후 10년 동안 한중일 협력이 더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혜민** 위에서 경제의 중요성 및 경제 분야에서의 3국의 세계적인 영향력에 대해 이미 언급했기에 이번 질문에서는 제 경험을 토대로 답하고자 합니다.

한중일 3국은 서로를 칭할 때 이런 말을 즐겨합니다: “가깝지만 먼나라”. 이는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서로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는 ‘아, 중국은 이럴 것이야’, ‘아, 일본은 저럴 것이야’ 하는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3국 협력 프로그램 중 하나인 CAMPUS Asia 참여를 통해 시각이 많이 변하였습니다. 동기와 후배들과의 토론을 통해 갖고 있던 색안경을 벗어 던질 수 있었고, 보다 넓고 깊게 3국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동기들과의 동창회를 통해서도 프로그램 이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서로가 가진 3국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확인합니다.

저는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교류가 더 활발해져 청년들이 직접 3국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며 고정관념을 깬 기회를 자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AMPUS Asia는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하여 약 10년이 되었으며, 이 프로그램 출신 학생들은 현재 경제학자, 문화전문가, 외교관 등으로 한중일 3국 협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청년들을 계속 양성한다면, 10년, 20년 후 3국간 경제협력뿐 아니라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다른 분야 협력에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CS** 한중일 3국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정부 및 민간 모두 포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혜민** 한중일 3국 협력을 더 활성화 시키려면 정부, 민간 모두의 노력 필요하며 어느 한쪽만 노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부는 역사, 영토, 문화 등 갈등을 국내 정치에 맞춰 이슈화로 이용하기 보다는 각국 청년들의 관심을 토대로 미래지향적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 영토, 문화 등의 갈등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장기적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과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함께 민간의 노력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합니다. 정부 간 갈등이 있으면 다른 국가에 대한 부정적 기사들이 쏟아지고, 이와 반대로 갈등이 해소되면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소식이 미디어에 도배가 됩니다. 갈등을 겪고 있는 시기에는 가짜뉴스 등 자극적인 소식에 많은 시선이 쏠리며 사실무근의 내용을 사실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언론을 통해 상대 국가에 대한 인식이 쌓이기 때문에, 언론은 특히 왜곡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는 표현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국 국민들이 최근 서로 '혐(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3국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부 간 협력 관계가 언론에 긍정적으로 많이 노출된다면 이 단어의 사용 빈도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3국 국민들이 자극적인 소식으로 지식을 얻기보다 3국간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상대 국가를 직접 이해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향후 3국 협력을 더 강화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3국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TCS)은 한·일·중 3국 정부가 서명 및 비준한 ‘대한민국, 일본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에 관한 협정(2010)’에 의거해 2011년 9월 서울에 공식 설립되었습니다. TCS는 여러 분야와 행위자들을 포괄하는 3국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3국 협력의 진전: 현실과 전망



2022년 6월 발행

발 행 처 3국협력사무국(TCS)  
주 소 0318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전 화 +82-2-733-4700  
팩 스 +82-2-733-2525  
홈페이지 [www.tcs-asia.org](http://www.tcs-asia.org)  
이 메 일 [tcs@tcs-asia.org](mailto:tcs@tcs-asia.org)  
인 쇄 Samyoung D&P

Copyright © 2022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이 책의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출판물의 어느 부분도 3국협력사무국(TCS) 허가 없이 어떤 형태나 수단으로도 무단 복제되거나 복원 시스템에 저장 혹은 출처 표기 없이 배포될 수 없습니다.





**3국 협력의 진전:  
현실과 전망**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03185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20층

Tel : +82.2.733.4700 / Fax : +82.2.733.2525 / E-mail : tcs@tcs-asia.org

Web: <http://www.tcs-asia.org>

Follow us on :

<https://www.facebook.com/TrilateralCooperationSecretariat>

[https://www.twitter.com/TCS\\_tweet](https://www.twitter.com/TCS_tweet)

<https://weibo.com/tcsasia>



ISBN 979-11-88016-86-0 (PDF)